

“원체힘” 통해 한승원 작품세계 조망

〈어린시절의 경험〉

국립 순천대 10·19 연구소 정미경 연구원, 연구서 펴내 한승원 문학의 총체성 규명 작품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

“한승원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원체힘은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발박하게 말한다면 한승원의 문학은 원체힘에서 뿔어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승원 문학 연구서 펴내 정미경 연구원



정미경 박사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의 부친이자 한국현대문학의 거장인 한승원 소설가. 지난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그가 펴낸 작품은 방대하다.

깊고 넓은 한승원의 소설세계를 추동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수지’와도 같은 거대한 마르지 않는 창작의 기저에 드리워진 강력한 에너지는 무엇일까.

작가이자 국립순천대 10·19연구소 연구원인 정미경 박사가 한승원 작품세계를 조망한 연구서 ‘한승원 문학 연구’ (문학들)를 펴냈다. 정 박사는 지난 2018년 한승원 문학 연구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정 박사는 11일 통화에서 “한승원 소설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주제가 정해져 있다. 작품 양이 방대하다 보니 대체로 고향과 바다, 신화, 생태 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책은 제가 예전에 썼던 박사논문을 좀 더 다듬은 연구서”라고 전했다.

일종의 한승원 소설을 이해하는 길잡이 성격의 책인 셈이다. 독자들은 원체힘 양상을 통해 ‘우주적 울동과 화평 세계’를 일정 부분 가늠할 수 있다.

정 박사에 따르면 한승원 문학을 다룬 연구가 주제와 관련 특정 작품에 치중돼 있다 보니 소설 전반을 조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체힘”은 작가의 생애와 작품 전반을 탐색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문학적 기원을 밝히는 작업과 연계된다.

“원체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 무심증’이었어요. (‘물 무심증’은 한 작가가 쓴 용어다) 한 작가의 의식 저변에는 5살 때 기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일하러 나간 사이, 혼자 돌병에 종이배를 띄워 놓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종이배를 잡으려다 그만 돌병에 빠졌나 봐요. 당시 5살이었던 아이는 최초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 박사는 죽음과 연계된 ‘물 무심증’은 단순히 죽음의 소재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모티브와 주제로도 확산됐다고 본다. 문학적으로 ‘여성’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 이분법적인 주제를 피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등이 ‘물 무심증’에서 파생됐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한승원 소설의 인물들이 사람에게 깊이 빠져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는 “어느 하나에 매몰될지 모른다는 무의식과도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니 한 작가는 순수문학 또는 참여문학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경향의 소설을 썼다. ‘주의’나 ‘이မ်’을 토대로 작품을 형상화하기보다 주로 신화적, 예술적인 모티브를 창작의 재료로 삼았던 것이다.

이번 책 발간에 대해 ‘한승원 선생님은 어떤 반응이었느냐’는 물음에 “책이 나왔다고 전화자, 선생님께 많이 기뻐하셨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정 박사는 “얼마 전에도 선생님을 뵈는데 조금 수심이 있어 보였는데” “올해 우리 나이로 87세이셔서 아마도 문득문득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다”고 덧붙혔다.

정 박사는 한승원 소설가의 근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블루투스를 구입해 딸 한강이가 작사 작곡한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를 들을 계획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또한 “선생님이 자신이 세상을 뜨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를 틀어놓게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박사는 마지막으로 “작품 목록을 정리하며 평생을 소설 쓰는 일을 하면서 아픔을 감지하고 빛으로 화하는 일을 하며 살아오신 선생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절로 일었다”며 “오늘도 변함없이 그는 소설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순천 출신인 정 박사는 2004년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순천대 국어교육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소설집 ‘공마당’, 연구서 ‘문학과 삶’(공저)을 펴냈으며 제3회 부마항쟁문학상 소설 부문에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을 ‘국악’으로 채우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15일까지 모집



작년 국립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강의에 참여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우리 국악의 종류와 함께 해를 ‘국악’으로 채우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2025 국악문화학교’에 참여할 수강생을 11일부터 15일(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온라인 지원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국악원 사무연속동 2층 장악과로 제출.

사물놀이를 비롯해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민요/판소리, 한국무용 분야를 운영하며 과목별로 15명(아쟁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 강의는 4월 3일~10월 30일 오후 7시에 국악원 연수관·진학당에서 총 21회 진행할 계획.

가야금은 김희진 강사가, 아쟁은 배주민 강사가 담당하며 해금(반은진), 대금(전광진) 분야에서 기본 운지법과 실기곡 연주를 배우게 된다. 정성업 강사는 사물놀이 기본 장단을 지도하고 민요·

판소리는 허정승, 한국무용은 최선화가 맡아 소고춤과 기본 움직임을 지도한다.

국악원은 수강생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수업 전 오후 6시 20분 진도읍사무소 앞에서 출발해 오후 6시 35분 십일시서진도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을 지난다(수업 후에도 운행). 강의 마지막 회차에는 발표회 및 수료식도 예정돼 있다.

국악원 박정경 원장은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국악교육을 제공해, 일상 속에서 ‘국악의 생활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며 “가야금, 아쟁, 해금 등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수강료 청소년 5만 원, 일반인 10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화예술 정보 검색·활용 한 곳에서

문예위, 기존 시스템 5개 통·폐합 ‘아르코 통합플랫폼’ 오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기존 시스템 5개를 통·폐합한 ‘아르코 통합플랫폼’을 오픈했다고 최근 밝혔다.

문예위가 운영하던 기존 25개 사이트 중 5개 사이트를 1차로 통합, 한 곳에서 문화예술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은 문예위 기관 누리집, 아트누리, 문학광장, 예술극장 등 12개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약 60만건에 이르는 통합기능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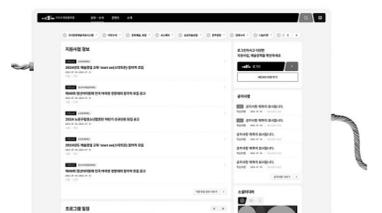
또한 문예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들의 프로필, 작품을 관리하는 기능도 마련했다. 예술인들 주요 이력과 선정 작품 발표 일정을 플랫폼에 공개하며, 예술인들이 자신의 작품 결과물을 동영상과 이미지로 노출할 수 있다.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문예위 중점 과제다. 올해 하반기에는 문예위 전체 회원 통합이 예정돼 있고, 2026년에는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문예위 정병국 위원장은 “여태 여러 곳으로 흩

세상 모든 예술이 모여드는 아르코 통합플랫폼

후부터 많은 예술이 플랫폼을 통해 검색·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방문하기



어져 있어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었던 문화예술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았다”며 “향후 통합 정보규모를 늘려 공모사업 신청부터 결과발표 전 과정을 예술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100년 후에도 사랑받을 책 50권

교보문고, 2000~2024년 출간도서 중 선정...7월까지 공개

“나의 눈부신 친구”(엘레나 페란테), ‘종이 동물원’(켄 리우), ‘노멀 퍼플’(샬리 루니), ‘레디플레이어 원’(에니스트 클라인),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마쓰이 마사시)...

위 도서는 교보문고 MD(상품기획자)가 지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출간된 도서 가운데 ‘100년 후에도 사랑받을 책’, ‘독자가 꼭 읽어보길 바라는 책’ 중 일부다.

교보문고는 이번 기획을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선정 기준은 작품성과 대중성의 조화다.

국내 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50권 가운데 6월까지는 소설 분야를 매주 한 편씩 25권 소개하고 나머지 25편 테마와 선정 도서는 7월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 이벤트 기간 중에는 사은품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이번 ‘21세기 클래식 50’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책들 가운데 ‘100년 후에도 사랑받을 책’이라는 모토를 결코



진행된다”며 “교보문고는 향후에도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문고 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